

“참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진료부분

<개인정보>

- 성명: 이○○(53/M)
- 종교: 불교 → 가톨릭 (베드로)
- 진단명: 췌장암, 오른쪽 흉막, 뼈(견갑골, 흉추, 요추) 전이
- 과거력: 고혈압, 위궤양
- 입원 경과: 2015.10월 췌장암, 오른쪽 흉막, 뼈(견갑골, 흉추, 요추) 전이 진단 받고 back pain에 대해 완화적 방사선치료 시행 받고 퇴원한 자로 Performance 저하되어 호스피스 치료에 대해 설명 및 동의 받은 후 호스피스 병실 입실함.
- 호스피스 완화병동 입원
- 1차: 2015.11.27 ~ 2015.12.12
- 2차: 2016.12.23 ~ 2016.01.15

- 3차: 2016.02.01 ~ 2016.02.18
- 임종일: 2016.02.18

<입원 시 상태>

- 활동 상태: PPS 30% (주로 침상에서 생활하며 침상 올려 앉을 수 있는 정도)
- 의식상태: 명료
- 식이: 미음(2-3 숟가락)과 물
- 배뇨 및 배변: 2회/1일(200cc) 배뇨 불편 없음. 1회/7일 변비양상 있음.
- 활력징후: 혈압 125/92mmHg-맥박 97회/분-호흡 18회/분-체온 36.7
- 피부상태: 전신 마른 상태이나 부종 및 피부 손상은 없음.

진료부분

<병력>

- 2015.10 췌장암, 오른쪽 흉막, 뼈(견갑골, 흉추, 요추) 전이 진단
- 2015.10.13 ~ 2015. 11.11
- 흉막 전이로 인한 비디오보조 흉강경수술 이용한 조직검사와 탈크 흉막유착술 시행 (2015.10.19).
- 전이 된 뼈(견갑골, 흉추, 요추) 완화적 방사선 요법(2015.10.28 ~ 11.11)

2015.11.27 ~ 2015.12.12

- 호스피스완화병동 입원

2015.12.13 ~ 2015.12.21

- 환자 및 보호자, 주치의 협의 후 호스피스 퇴원하여 항암(Gem-Cis) 치료 시행함. 환자의 거부로 중단하고 집으로 퇴원.

2016 12.23 ~ 2016.01.15

- 호스피스완화 병동 재입원

2016.01.16 ~ 2016.01.31

- 본원 호스피스 종양내과 외래 다니면서 집에서 가정간호 받음.

2016.02.01 가정간호 받으며 지내다 심망, 불면, 경구 섭취저하, 통증 증가 등 증상 나타나 호스피스 재입원함.

<주 증상에 따른 진료과정>

첫 번째 입원: 통증(등과 허리, 다리)
두 번째 입원: 경구 섭취 저하 / 전신 쇠약 증가
세 번째 입원: 임종과정

통증 (사정)

- 쇄골 & 등과 허리 통증, 다리 저림 호소함.
- 첫 번째 흉추부터 천골, 양 엉덩이뼈 전이로 인한 bone pain, 신경병증성 통증
- 통증 조절 약제
- fentanyl patch 75mcg/h PRN)Ircodone tab 2T(10mg)
(치료계획)
- fentanyl patch. PRN 경구약 중단 후 24시간 주사제 옥시념으로 변경하여 통증 조절

(D5DW2+DN-OXY20J 6A+DN-OXY10J 1A(70mg) mix iv//PRN DN-OXY10J 8mg iv)

- 신경병증 통증에 뉴론틴(가바펜틴) 추가 (반응)
- 진통제 변경 후 통증 감소

경구 섭취 저하 및 전신 쇠약 (사정)

- 오심 호소함.
- 경구 섭취 미음 2-3 숟가락 정도 먹음.
- 항암치료 후 전신쇠약증가 호소 (치료계획)
- 말초 정맥 TPN 유지
- 오심 호소 시 항구토제(맥클 주) 사용
- 뉴케어 등 식이보조제 섭취 격려 (반응)
- 오심 호소 감소
- 식사량 증가(미음 반 그릇 이상)
- 뉴케어 식이 하루 한 캔 이상 복용
- 전신 쇠약감 호전
- 퇴원 후 가정간호 받다가 세 번째 입원 후 임종

간호 부분

<간호학적 진단>

종양의 뼈 전이(흉추, 요추 등)와 관련된 통증

- (주관적/객관적 자료)
- “다리가 너무 저려요, “등과 허리가 쭈시고 아파요”
- 뼈(견갑골, 흉추, 요추) 전이 있음.
- 통증 평가 시 Numerical Rating Scale 7점 측 정됨.
- 보호자가 다리를 주무르고 있음.

(중재)

- 통증의 원인과 통증양상에 대하여 보호자 교육함.
- 통증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교육함.
- 추가된 진통 보조제(뉴론틴:가바펜틴)에 대한 약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하여 교육함.
- 봉사자가 보호자의 다리 마사지를 대신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며 다리 마사지를 통한 다리 통증이 감소할 수 있도록 도움.

(평가)

- 주사에 진통제 사용이 하루 4-5회에서 1-2회로 감소함
- 통증평가 Numerical Rating Scale 점수가 2점으로 감소함.

가족기능 장애

(주관적, 객관적 자료)

- 부인 “남편에게 병에 대하여 모두 말하지 못했어요.”
- 환자 및 보호자 증상에 대하여 질문이 많으며 어두운 얼굴 표정을 지음.
- 가족 간 불화 있음.(시누이들과 환자의 부인 간 가족 문제로 부인 속상하다고 말함)
- 입원 초기 부인 환자의 간병과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실신하여 본원 응급실 방문함.
- 환자 돌봄에 부인만 참여하며 성인 자녀들 무심하고 환자를 위한 시간을 함께 하지 않음.

(중재)

- 환자와 가족들의 환자 상태에 대한 이해도를 사정하고 요구를 파악함.
- 호스피스 팀 미팅을 통하여 환자 및 가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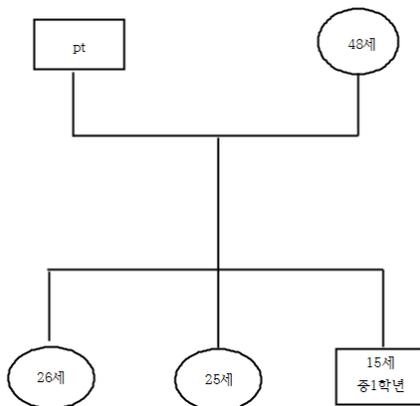
대한 치료계획 및 전인적인 돌봄을 위하여 완회의로 팀원 간에 의사소통과 돌봄 계획을 논의함.

- : 가족 면담을 통하여 가족들이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환자를 위한 돌봄을 의논하고자 함.
- 가족 간 돌봄 프로그램(원예요법, 미술요법, 마사지요법)에 참여를 유도하여 가족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함
- 환자 및 가족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가족 간 어려움을 말하도록 유도하고 잘 들어줌.

(평가)

-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였다고 말하며 자녀들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 방문회수 증가함.
- 돌봄 프로그램(요법)에 참여하여 가족 간 의사소통의 시간을 가짐.
- 추억 여행을 통하여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눔.
- 환자의 간병에 자녀, 다른 가족들 참여하며 부인이 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
- 환자 및 가족들 환자 상태를 이해하고 가정간호 연계하여 퇴원 가정에서 환자를 돌봄.

사회복지 부분



- 입원 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없었음.
- 환자는 6남매 중 막내아들이며 등산을 좋아함.
- 갑작스런 진단과 상태변화에 가족 모두 당황한 상태임.
- 큰딸은 천안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쉬는 날마다 올라와서 어머니와 함께 환자를 돌봄.
- 둘째딸은 집에서 동생을 돌보며 병원을 다녀감.
- 막내아들은 중학생이며 큰누나와 나이 차이가 많으며 큰누나와 라포가 잘 형성됨. 내원 시 막내아들은 환자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어 큰딸이 이야기 해주기로 함.

심리적 돌봄

갑작스러운 말기 암 진단으로 인한 근심스러움
불안, 우울, 두려움.

(사정)

- 긴장된 모습 보임.
- 시선을 맞추지 않음. 계속 눈감고 있으며 말을 걸면 웃기는 하지만 금방 표정이 굳음.
- 침상에서 주로 지내고 커튼을 치고 지내며 외부와 접촉을 하려하지 않고 말이 없음.
- 무기력함.

(개입)

-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기: 느낌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함.
- 보호자가 항상 함께 있도록 함.
- 두려움을 표현하도록 격려함.
- 손, 발 마사지와 같은 지지적인 신체적 방법을 제공함.
-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결과)

- 질병상태를 이해하고 수용함.
- 편안한 환경으로 안심된다고 표현함.
- 통증완화 표현함.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는 가족 돌봄

(사정)

- 갑작스런 진단으로 가족들이 환자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음. 병원에 오면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거나 간호를 하기보다는 옆에서 핸드폰을 하거나 잠을 자고 있어서 환자와 함께 하는 어머니가 속상하다고 표현함. “애들 아빠는 아파서 힘들어하면서 눈감고 있고, 아이들은 왜 자꾸 병원에 오라고 하는지 모르니 아빠 옆에서 잠만 자거나 게임만 하다가 가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환자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조금 눈치 챌 것

같아요. 남아 있는 시간을 궁금해 해요. 누나들도 상황을 알고 싶어 하는데 누구하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힘들어요.”

(개입)

-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환자와 만나서 본인의 상태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무엇이 제일 궁금한지를 물어보았다.
-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걱정이고...”
- 환자에게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겠는지 물어보고 본인의 상태를 들을 용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병동에서 진행하는 가족모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큰딸이 쉬는 날을 정해서 가족이 모이기로 했다. 환자가 불편한 가족은 제외하고 환자가 왔으면 하는 가족(고모)만 참석하기로 했다.

가족모임

- 실시일자: 2016/01/13 16:00~16:40
- HD: 22일째.
- 모임 참석자: 환자, 부인, 딸2, 아들, 누나, Sr.페트라, 사회복지사 이금향, 심병용 교수, 간호사 이형주, 원목자 세실리아수녀
- 목적: 치료 과정 및 호전 가능성의 여부를 알려주고 진실고지를 하고자 함.
-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모임 초기에는 가족들이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다.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궁금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환자가 자신의 여명을 확실하게 알려달라는 이야기 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제게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얼마나 남아있나요? 남아있는 시간에 따라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심병용 교수의 1달 정도의 여명을 듣고 모임의

분위기는 많이 침체되었고 버킷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과 여행은 좀 하였느냐는 질문에 둘째 딸이 본인은 가족들과 하는 여행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며 아쉬워하여 가족여행을 계획하였다. 다음날까지 큰딸이 휴가여서 가족여행을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장소는 가족들이 자주 놀러갔던 제부도 모세마을로 하였으며, 병원 앰버런스를 타고 출발하였다. 여행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환자는 “이제 병원

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여 함께 했던 모든 가족들도 행복해하였다.

(결과)

- 가족모임을 통하여 환자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되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함.
- 추억여행을 통하여 가족 간의 결속력이 강화되었고 환자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표현을 함.

원목 부분

<종교적 배경>

환자는 무교이며 절에 다니는 가족들이 있어서 종교란에 불교라고 적었다고 이야기함.

원목자 방문 시 항상 눈 감고 있으며 가족들도 말이 없으며 방문을 하였을 때 귀찮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원목자와의 만남>

호스피스병동 명단에 새로운 환자가 올라와서 방문하였다. 피곤해 보이는 부인과 눈을 감고 다른 사람과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느낌을 주는 환자를 만났다. 부인이 환자가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여 깨우지 못하고 돌아왔다. 다음날 방문해서 인사를 하였다.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듯 보였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웃는 것으로 무마하려는 듯 보였다.

환자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여 종양 병동에 올라가 항암을 한 번 더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환자와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본 지 10여 일 만에 환자가 다시 호스피스로 왔다. 항암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환자 스스로 항암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원 후 다시는 항암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병원에 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환자 본인 앞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가족들이 모두 환자와의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그러던 중 가족모임을 하게 되어 환자가 본인의 여명을 알고는 만나는 느낌이 달라졌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걱정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좀 텁텁해요. 죽으면 끝이겠죠?” 환자의 한마디에 죽음 뒤에 끝이 아닌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것임을 설명하고 하늘나라에서 가족들을 위해 하느님께 부탁하고, 가족들은 아버지를 위해 여기서 기도하면 만날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하며 마무리하였다.

가족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가족들이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여 퇴원을 하였고 명절을 앞두고 환자가 밥을 먹지 못하고 가끔 헛소리를 한다고 재입원을 하였다. 환자를 만나 집에서 지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환자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함께 있어 주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잦은 방문을 하였다.

환자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부인은 나중에 가족들이 성당에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

를 해 주었다. 환자의 생각은 어떠냐는 질문에 환자는 대답이 없었고 부인이 “이제 떠나는 마당에 갑자기 종교를 갖는 것이 하느님께 죄송하다고 하네요.”하고 이야기 하여서 환자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환자는 대답을 못 하고 있었다. 언제든지 결정되면 이야기하라고 말해주고 돌아왔다.

그날 밤에 환자의 호출을 받고 호스피스 팀 장 수녀가 방문하여 대세를 주었다고 한다. 임종을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묵주기도를 함께 하고 환자와 함께 있어 주었다.

< 마무리 >

환자가 본인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있어 줬이었다. 환자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고 함께 있어 주는 것으로도 환자는 고마움과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하느님의 자비로 고통 속에서 평화롭게 임종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남편과 아버지와의 이별을 슬퍼하면서도 기도 속에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다.

자원봉사 부분

새해 첫 봉사 일이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머리 감기와 발 마사지를 하겠느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으신다. 먼저 발 마사지를 해 드리면서 “신년 새해 처음 받아보시지요?”하고 물으니 “예”라고 대답하며 웃기도 잘하시고 항상 고맙다는 말도 아끼지 않고 긍정적인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

작년 10월에 발병하여 가족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부인분이 말씀하신다. 종교는 특별하게 없다 하셨는데 천주교식 기도를 해 드리니 편안해 하셨다. 환자의 표정도 밝고 이야기도 잘하고 있다. 가족모임을 할 예정이라며 딸들과 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일모레 퇴원 예정이라고 자랑처럼 말씀하면서 오늘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잊지 않으신다.

목욕하고 퇴원하신다고 하셨다. 가족모임하고 어제 여행을 다녀와서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하신다. 가족 전체가 밝은 얼굴이며 환자 얼굴은 전에 없이 편안하고 웃음이 많아지셨다. 개운하게 퇴원준비를 하셨다.

퇴원하였던 환자분 얼굴을 보니 반가워 다가가 인사를 하니 환자와 가족 모두가 웃으며 반기신다. 부인이 말씀하시기를 조금씩 탄소리를 시작하였다고 이야기하여서 많이 놀랐느냐고 했더니 이미 퇴원하기 전에 섬망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가정간호사가 방문하면서 설명을 들어 별로 놀라지는 않았다고 한다. 특별히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섬망 증상을 이해하며 지냈기에 편안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하게 족욕과 발 마사지를 시행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의 얼굴의 얼굴에 웃음이 늘어나 매주 봉사하며 만나는 시간이 뿌듯함을 준다.

부인이 항상 옆에서 돌보아주고 있으며 누나들도 자주 방문을 하는 환자분이다. 지난밤에 베드로로 대세를 받았으며 의식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기도를 해드리러 병실에 들어갔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환자를 바라보고 있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고 묵주기도를 함께 하고 나왔다.